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과 덴구(天狗)

-난세를 만들어내는 덴구의 탄생-

박은희*

目次

1. 서론
 2. 본론
 - (1) 『곤자쿠(今昔)』속의 덴구 -환술(幻術)과 병의
 - (2) 고시라카와인의 관정(灌頂)과 덴구 - 덴구 문답을 중심으로
 - (3) 스미요시다이묘진(住吉大明神)과 덴구
 - (4) -반불법(反佛法)적 존재에서 반왕법(反王法)적 존재로
 - (4) 지쇼(治承) 3년 쿠데타와 덴구 - 난세를 만들어내는 덴구의 탄생
 3. 결론
-

1. 서론

『료진히쇼(梁塵秘抄)』의 저자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은 이마요(今様)와 같은 유행가에 심취하는 한편 잦은 불도 수행과 절, 신사 참배를 통해 종교생활에 힘썼다 고시라카와인이 지니고 있는 동시대 예능에 대한 막대한 관심과 성불(成佛)을 지향하는 독실한 종교적 행위는 일견 상반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모습은 지쇼·쥬에이(治承·壽永) 내란기에 보여준 정치가적 면모와 더불어 고시라카와인을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고시라카와인의 세 가지 면모, 즉 정치적 종교적 예능적 측면 중 종교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종교적 측면이라고는 하나 불도 수행과 같은 종교적 행위 그 자체에 관한 고찰은 아니다. 고시라카와인이 행한 종교적 수행을 바탕으로 이차적으로 생성된 이야기, 즉 덴구(天狗)에 얽힌 이야기를 분석의 중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많은 선업을 쌓음으로써 극락왕생을 꿈꾸었던 고시라카와인에게는 이상하게도 덴구와 얽힌 이야기가 많다. 예를 들면 『히라산코진레이타쿠(比良山古人靈託)』에서 고시라카와인은 스토쿠인(崇徳院)과 마찬가지로 덴구도(天狗道)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것도 덴구로서

*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중세 문학, 문화

유명한 스토쿠인 보다 위세가 더욱 대단하다고 서술되어 있다¹⁾. 요리토모(賴朝)가 고시라카와인을 가리켜 「일본에서 제일가는 덴구(日本國第一之大天狗)」라고 지칭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²⁾. 또한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의 판본 중 하나인 엔고본(延慶本)과 『겐페이요조수이키(源平盛衰記)』에는 스미요시다이묘진(住吉大明神)과 고시라카와인이 나누었다고 하는 덴구 문답³⁾이 존재한다.

고시라카와인과 덴구를 소재로 한 이야기는 고시라카와인 생전 또는 사후 직후 등 비교적 빠른 단계에 보인다. 이들 일화에는 성불을 추구했던 고시라카와인이 왜 일본에서 제일가는 덴구가 되었는지, 혹은 많은 불교적 수행에도 불구하고 왜 사후 덴구도에 빠졌는지, 나아가서는 일화 속의 덴구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영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와 같이 고찰하여야 할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라카와인과 덴구의 연관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필자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자들이 덴구와 고시라카와인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덴구 문답을 제외하고는 한두 줄의 서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전체 작품 속에서 의미를 논하기에는 양적으로 미미하다. 『히라산코진레이타쿠』의 경우, 여러 천황과 공경(公卿)들, 스님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문답의 하나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며, 요리토모(賴朝)의 발언 또한 권모술수를 통해 정치적 안위를 얻고자 하는 고시라카와인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위와 같은 이유로 고시라카와인과 덴구의 연관성은 무시되어도 좋은가. 본 논문은 고시라카와인과 덴구를 둘러싼 다양한 언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고시라카와인을 둘러싼 덴구담의 공통분모를 찾아 밝히는 것은 고시라카와인 연구에 있어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덴구가 어떠한 성격의 영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고시라카와인과 무엇을 매개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히라산코진레이타쿠』도 요리토모의 발언도 서술의 양이 많지 않아 이것만을 토대로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덴구 문답⁴⁾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

1) 問ふ。後白河院と崇徳院と、その威勢の多少はいかに。答ふ。後白河院の威勢、以ての外の事なり。(佐竹昭廣校註『寶物集 閑居友 比良山古人靈託』<新日本古典文學大系>岩波書店、1993年、p.469)

2) 『교큐요(玉葉)』분치(文治) 원년 11월 26일 기사와 『아즈마카가미(吾妻鏡)』같은 해 11월 15일 기사에 실려 있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편지의 수취인인 다카시나 야스쓰네(高階泰經)라고 보는 설과 고시라카와인이라고 보는 설로 나누어진다. 이 문제에 관한 학계의 동향은 사에키 신이치(佐伯眞一)의 논문 「後白河院と「日本第一天狗」」(『明月記研究』4號、1999年11月)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3) 덴구 문답과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서 독립된 모노가타리로 『덴구모노가타리(天狗物語)』가 존재한다. 가타오카 다카이카(潟岡孝昭)에 의해 새로운 자료로 소개된 이후 『덴구모노가타리』와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전후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덴구모노가타리』의 조본(祖本)이 일정 단계에서 『헤이케모노가타리』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화되었다. 潟岡孝昭「新資料「天狗物語」と「平家物語」との関係」(『大谷學報』39-2、1959年11月)

4) 덴구 문답의 텍스트로는 北原保雄・小川英一編『延慶本平家物語 上』(勉誠社、1990年)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추론된 결론을 그 밖의 덴구담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덴구라는 영적 존재는 그 모습과 특성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이하 『곤자쿠』) 속의 덴구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스님들의 범력에 혼이 나는 다소 불쌍한 존재⁵⁾로 등장한다. 반면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 속의 덴구는 정치적 혼란, 즉 난세를 초래하는 무서운 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덴구의 개념적 변화와 고시라카와인에 얽힌 덴구담의 생성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덴구가 인간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강력한 파워를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고시라카와인과 덴구의 긴밀한 연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1) 『곤자쿠(今昔)』속의 덴구 -환술(幻術)과 빙의

흔히 덴구라 하면 아마부시(山伏) 차림새에 빨간 얼굴과 높은 코가 있고 날개가 있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며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神通력이 있는 다소 장난기 어린 요괴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덴구의 이와 같은 정형화된 모습과 특징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덴구의 개념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하여 왔다. 우선 고시라카와 원정기(院政期) 이전의 덴구에 관한 서술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문헌에 처음 덴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일본서기』 조메이(舒明) 천황 9년의 기사로, 민(甞) 법사가 천둥소리와 더불어 떨어진 유성을 덴구라고 지칭한 용례가 초출이다. 덴구를 유성과 동일시하는 민법사의 견해에 중국 덴구관의 영향이 보인다는 사실은 선후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⁶⁾. 모노가타리(物語) 속에도 산속의 기이현상을 일으키는 요괴로 덴구의 이름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덴구가 본격적으로 문학의 소재가 된 것은 역시 『곤자쿠』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곤자쿠』의 덴구담은 혼초(本朝) 불법(佛法)의 마지막 권인 20권에 모여 있다. 총 12개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으며 제8화는 제목만이 남아 있다. 불법의 마지막 권에 배치되어

참고로 엔코본과 『겐페이쥬수이키』의 덴구 문담은 위치와 내용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

5) 馬場あき子『鬼の研究』(筑摩書房、1999年) p.221

6) 高橋昌明『鬼と天狗』『岩波講座日本通史中世二』(岩波書店、1994年) p.330. 다카하시에 의하면 중국의 『사기』『한서』 등에 보이는 덴구는 지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유성이며, 『산해경』에는 목이 흰 너구리와 같은 짐승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한다.

있다는 사실은 종종 세속편인 27권에 실려 있는 영(靈), 또는 귀신(靈鬼)과 대비되어 덴구가 지니고 있는 반불법성(反佛法性)의 상징으로 지적되어 왔다. 불법에 반하는 덴구의 특성은 불도를 방해한다고 하는 천마(天魔)와도 공통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덴구문답의 경우 덴구와 천마가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즉, 고시라카와인의 관정(灌頂)을 방해하는 주범을 천마라고 지칭하다가 이야기 중반쯤에서 덴구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덴구와 천마는 불교수행을 방해하는 존재이지만, 어디까지나 불교적 범주내의 존재이다. 이 점은 이후 고시라카와인에 얽힌 덴구담을 살필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20권 제3화를 통해 『곤자쿠』 덴구담의 전형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3화에서 덴구는 감나무 위에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찬연한 빛을 발하며 여러 가지 꽃을 하늘에서 흩뿌리게 하는 등 참으로 고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운하처럼 모여들었다⁷⁾.

감나무 가지 위에 나타난 부처님의 모습은 참으로 고귀하여 사람들이 이를 보러 사방에서 몰려든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찬연한 빛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갖가지 꽃은 부처님의 현현을 상징하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감동한다. 이처럼 덴구는 부처님을 능가하는 극적인 등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덴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도수행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식은 인용에 보이는 것과 같은 변신, 즉 환술(幻術)이다. 덴구의 환술은 완성도가 높아 일반 민중들과 수행이 낮은 스님들은 환술임을 간파하기 쉽지 않다. 여자는 물론 스님, 법사(法師), 히지리(聖), 심지어는 부처님으로 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불교에서 천마가 사는 곳은 욕계(欲界)⁸⁾의 제6천(第六天)인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라 불리는 곳이다. 제6천인 타화자재천이란 무엇으로든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20권 제2화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덴구는 「늙은 법사의 모습으로 변하여, 일본 고승들을 시험해 보려 하고, 제9화에서는 신발을 강아지로 만드는 등 환술(幻術)에 능하고 덴구를 신처럼 모시는 법사가 등장한다. 이들 이야기에서 덴구는 환술이나 변신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 환술은 덴구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히카루 대신(「光の大臣」)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어 부처님을 향해 눈도 깜빡하지 않고 두 시간 정도 계속해서 노려보고 계셨다. 이 부처는 잠시 동안 빛을 발하고 꽃비를 내리었으나 더더욱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노려보자 아무래도 견디기 힘들었는지

7) 馬淵和夫編『今昔物語集』(小學館、1974年) pp.38-39

8) 욕계라 함은 색욕, 탐욕, 물욕, 권력욕 등의 욕망이 강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다. 인간계도 이곳에 속한다.

갑자기 커다란 솔개(「糞鷲」)가 되었고, 날개도 부러져서 나무위에서 떨어져 (푸드덕거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기이하다고 여겼다. 아이들이 달려 와서는 그 솔개를 때려서 죽였다.⁹⁾

닌묘(仁明) 천황의 11 번째 아들인 히카루 대신은 감나무 위에 부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이것은 덴구 등의 짓일 것이다. 환술은 7일을 넘기지 못 한다」고 생각하여 직접 부처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눈싸움을 하고 덴구의 정체를 밝힌다.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덴구의 패배이다. 미야모토 케사오(宮本袞裘雄)는 『곤자쿠』에 등장하는 덴구를 「불교의 이단자이며 수행을 방해하는 마성(魔性)을 지닌 존재로 고승이나 고귀한 인간에 의해 간단히 진압되어 버리는 존재」¹⁰⁾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간단히 진압되어 버리는」 덴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덴구의 패배는 반불법적 성격과 더불어 『곤자쿠』 덴구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승들을 골탕 먹이려다가 번번이 스님들의 법력에 혼이 나는 덴구, 정체가 밝혀진 후 아이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는 덴구의 모습에서는 군키모노가타리에 나오는 덴구와 같은 무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곤자쿠』에 나오는 덴구의 한계, 즉 불교적 범주 안에 존재하며 불법을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책략을 동원하지만 간단히 진압되어 버린다는 사실은 난세를 만들어내는 덴구와 가장 큰 질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아이들에게 몰매 맞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난세를 만들어내는 경계해야 할 무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2절과 3절에서 덴구 문답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덴구 문답 분석에 앞서 덴구의 빙의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덴구는 직접 여자나 노인, 스님, 부처로 변하여 불도수행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빙의하여 불도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덴구가 인간에게 빙의할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우선 같은 불교 설화집인 왕생전(往生傳)류에 나오는 덴구의 예를 살펴보자 『슈이오쥬덴 拾遺往生傳』 사문 초케이(沙門 長慶)전에 등장하는 덴구는 먹을 것을 찾아 어떤 오래된 궁에 들어갔는데, 그 궁에 살고 있던 왕비는 덴구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에 닿자 병에 걸린다. 또한 『조쿠오쥬덴(續往生傳)』쇼쥬 헨쥬(僧正 遍照)전에 나오는 덴구는, 당시의 영험한 스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우대신(右大臣)의 집에 들어가 우대신의 가슴을 밟자 우대신이 갑자기 병이 났다. 흥미롭게도 우대신이 실신하였다가 소생하는 상황을 덴구가 밟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몸짓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덴구의 구체적인 행동이 병상과 직접 연결되어 표현되어 있다. 덴구의 기운에 닿으면 병에 걸리고 덴구가 가슴을 밟으면 실신하는 등, 덴구는 몸에 병을 일으키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덴구가 몸을 점령할 경우 병을 불러 일으켜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9) 주7의 前掲書, p.39

10) 宮本袞裘雄『天狗と修驗者』(人文書院、1989年) p.27

또한 덴구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점령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곤자쿠』 제6화이다. 제6화는 히가시아마(東山) 부쓰겐지(佛眼寺)에 살고 있던 닌쇼아차리(仁照阿闍梨)에 얽힌 이야기이다. 수행에 정진하던 닌쇼아차리에게 도박꾼의 아내가 먹을 것을 들고 찾아와 스님을 봉양하고 싶다고 말한다. 여인은 그 후로도 종종 찾아오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같이 지내던 스님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가 혼자 있던 차에 이 여인이 찾아온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안 여인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 스님을 위협하는데, 결국 기도와 부처님의 도움으로 이 여인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물리치게 된다.

「나는 히가시아마의 다이시라카와(大白河)를 지나다니는 덴구이다. 이 절 위를 언제나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수행이 끊이지 않고 방울 소리가 아주 고귀하게 들리므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타락시켜야지 마음먹고 근래 2년간 이 여자에게 붙어서 일을 획책한 것이다 (중략)」라고 읊면서 말하니 아차리는 부처님께 향하여 읊면서 절을 하고 여자를 용서하였다. 그 때에 여자는 정신이 들고 본래의 마음이 되돌아와 머리를 빗고 손질하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다.¹¹⁾

부처님의 법력에 혼이 난 덴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빙의된 상태의 여인의 몸과 마음을 덴구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님을 유혹한 것은 여인의 몸과 언행이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덴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덴구가 빙의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할 경우,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경우와는 달리 그 피해가 제3자를 향하게 된다. 즉 덴구의 목표물은 빙의된 사람(도박꾼의 아내) 그 자체가 아니라 제3자(스님)가 되는 것이다. 인용에 보이는 덴구와 덴구에 빙의된 사람, 그리고 제3자의 삼각 구도는 난세를 만들어내는 덴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또한 이 구도는 2절에서 살펴볼 덴구 문답의 기본구도이기도 하다. 고시라와인의 관정을 방해하려는 덴구와 이에 맞서 관정을 이룩하고자 하는 스미요시다이묘진의 활약을 중심으로 덴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자.

(2) 고시라카와인의 관정(灌頂)과 덴구 - 덴구 문답을 중심으로

덴구 문답을 둘러싼 전후사정은 다음과 같다. 시시가타니 사건의 여파로 근심에 잠긴 고시라카와인은 불도 수행에 더욱 정진하여 온조지(園城寺)에서 관정을 하려 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엔랴쿠지(延曆寺) 스님들은 예로부터 천황 또는 인(院)의 관정과 수계(受戒)는 자신들이 해왔다는 선례를 들어 이를 저지하려 한다.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엔랴쿠지는 만약 자신들의 의견을 고시라카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온조지를 불

11) 주7)의 前掲書, pp.49-50

태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 결국 산문(山門:엔라쿠지) 스님들의 강력한 항의에 고시라카와인은 온조지에서의 관정을 포기한다.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을 둘러싼 이와 같은 소동은 『헤이케모노가타리』 판본 대부분의 경우 골자만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선례에 어긋나는 관정에 대한 산문의 분노가 클로즈업되고 고시라카와인은 거의 초점화되지 않는다. 즉, 산문과 고시라카와인과의 대립이라기보다 산문의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가타리(語り)계 판본의 경우 관정에 이어 엔라쿠지 내부의 갈등, 즉 학생승과 밑에서 일하는 스님들과의 싸움을 서술함으로써 불법의 쇠퇴라는 측면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도미쿠라 도쿠지로(富倉徳次郎)는 관정을 둘러싼 횡포, 엔라쿠지 내부의 분열을 그리고 있는 「산문멸망」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스(座主) 유배」의 결론에 해당하며, 히에잔(比叡山) 불법의 쇠퇴, 그리고 왕법 불법의 괴멸 위기라 할 수 있는 지쇼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¹²⁾.

덴구 문답이 없는 판본의 경우, 도미쿠라의 지적처럼 관정을 둘러싼 소동은 하쿠산(白山) 사건 이후 심화되는 산문 횡포의 일례로 열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왕법을 보좌해야 할 불법이 사사로운 이유로 고시라카와인의 의향에 반기를 들고, 뿐만 아니라 같은 불교도량의 하나인 온조지를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덴구 문답이 있는 엔교본과 『젠페이조수이키』의 경우 앞서 말한 판본들의 서술 태도와는 달리 오히려 고시라카와인과 사건과의 관련성에 힘을 기울여 묘사하고 있다. 스미요시다이묘진과 고시라카와인이 나눈 덴구 문답을 삼입함으로써 관정을 둘러싼 문제를 일방적인 산문의 횡포가 아닌 고시라카와인의 불심(佛心)과 덴구와의 길항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소동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고시라카와인 내면의 변화 등, 관정을 둘러싼 소동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덴구이다. 위의 두 판본은 산문 횡포의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즉 덴구의 활동에 조명을 비추고 스미요시다이묘진을 등장시킴으로써 신들의 세계와 인간세계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顯)에서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冥)의 여러 존재들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¹³⁾. 이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덴구 문답을 분석

12) 富倉徳次郎『平家物語全注釋 上巻』(角川書店、1982年) p.330

13) 역사를 명(冥)과 현(顯)의 두 세계로 나누어 인식한 대표적인 예로 『구칸쇼(愚管抄)』의 저자 지엔(慈圓)을 들 수 있다. 구로다 도시오(黒田俊雄)는 지엔의 명과 현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보통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현의 세계 뒤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의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한

해보도록 하자.

엔라쿠지의 반대에 부딪쳐 관정을 포기한 채 시름에 잠겨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스미요시다이묘진(住吉大明神)은 고시라카와인 앞에 현현(顯現)하여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어제 새벽 산노시치샤(山王七社) 덴교다이시(傳教大師)가 이 늙은이의 숙소로 찾아오셔서 일본의 길흉을 의논하시는데, 이번 산문 스님들의 사풍(邪風)이 특히 심하다 하는데, 인(院)의 마음을 괴롭히는 뜻밖의 사건입니다. 단 (그들은) 맑은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천마가 모여들어 산문 스님들에게 빙의하여, 당신의 관정을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¹⁴⁾.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설명에 의하면 산문 스님들의 항의는 관정을 방해한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천마¹⁵⁾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곤자쿠』 제6화에서 덴구가 도박꾼의 아내에게 빙의하여 스님을 유혹했던 것과 같은 구도라 할 수 있다.

관정을 방해한 것이 엔라쿠지의 스님들이 아니라 천마라고 한다면 의당 그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즉 최고 권력자로서 왕법의 힘으로 스님들은 처벌하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밀줄친 부분, 즉 산문 스님들을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정을 방해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덴구(천마)의 소행이기 때문에 스님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곤자쿠』 제6화에서는 덴구가 떨어져 나간 뒤 도박꾼의 아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흐트러진 옷과 머리를 추스르고 조용히 사라진다. 스님을 유혹했던 여인에 대한 추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덴구가 빙의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은 덴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님들의 행동이기는 하나 스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덴구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덴구가 왜 스님들의 몸에 들어가 관정을 방해했을까, 바꿔 말하면 어떤 때에

쪽에는 신불의 수호, 신들의 약속,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의 조치 등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덴구, 원령, 악마 등이 있어 이 선과 악이 인간세계를 지키려고 또는 혼돈에 빠트리려고 싸우고 있다 (黒田俊雄『王法と仏法』(法藏館、2001年) p.50)

14) 北原保雄・小川英一編『延慶本平家物語 上』(勉誠社、1990年) p.223

15) 덴구 문답에는 덴구와 천마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천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몸과 개와 같은 얼굴, 날개,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神通력을 제시하고 있어 덴구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설명에 따르면 천마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학생승과 식자 중에서 교만하고 도를 따는 마음이 없는 자가 죽어서 되는 것이고(天狗道), 두 번째는 파순(波旬)으로 덴구로서의 업이 끝난 뒤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 산이나 계곡에 들어있을 때를 가리킨다. 세 번째는 마연(魔縁)으로 도를 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직 살아 있을 때 그의 교만한 마음이 연이 되어 천마가 오는 것을 의미한다.

텐구가 나타나 수행을 방해할까. 다음 인용은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다.

천마는 세상에 많다고 하지만 장애를 이룰만한 연(緣)이 없는 사람의 곁에는 날라 와 모이는 일이 없다. 그러니 범황의 교만한 마음이 어느새 마왕이 올 연(緣)이 되어 육십 여개 주의 텐구들이 산문 스님들 마음속에 들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렇게도 훌륭한 수행을 전부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¹⁶⁾.

인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텐구는 그럴만한 연이 없는 곳에는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주장에 따르면 텐구가 관정을 방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고시라카와인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관정을 준비하며 고시라카와인은 「입단(入壇) 관정하여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는 빛을 발하고 (깨달음을 얻어) 대일여래와 같은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밝은 덕을 갖춘 무리들 속에서도 드문 일이다. 천자, 제왕 중에서도 나아말로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라는 큰 교만심을 품었다. 「어떠한 지자(智者)나 진언(眞言) 스님들 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이 교만심이야말로 텐구를 불러들인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처럼 관정을 둘러싼 소동의 모든 원인을 고시라카와인의 마음으로 수렴하는 것은 엔교본과 『겐페이쥬슈이키』가 다른 판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시라카와인은 스미요시다이묘진과 만나기 전 스님들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과 스님 처벌이 죄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문의 횡포를 텐구에 의한 소행으로 위치지음으로써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번 소동의 해결책도 관련자 처벌에서 고시라카와인 자신의 교만심을 없애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인왕(人王)이 시작된 이래(사람이 천황이 되기 시작한 이래) 나에게 이르기까지 70여대(代)의 미카도(御門), 그 수가 많다고 하지만, 스미요시다이묘진을 직접 대면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눈 천황은 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장애를 없애고 도와주십시오¹⁷⁾.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충고를 받아들인 고시라카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힘쓴다. 인용에서처럼 스미요시다이묘진을 직접 만난 천황은 자신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교만한 마음이 되어 관정을 방해할까봐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이러한 변화된 태도에 힘입어 고시라카와인은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충고대로 시텐노지(四天王寺)에서 무사히 관정을 하기에 이른다.

16) 주14)의 前掲書 p.225

17) 주14)의 前掲書 p.227

텐구 문답에 있어 스미요시다이묘진과 텐구는 전혀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다. 텐구는 스님들에게 빙의하여 관정을 방해하고 스미요시다이묘진은 고시라카와인의 교만심을 깨우쳐 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케히사 쓰요시(武久堅)는 이러한 측면을 들어 스미요시다이묘진은 고시라카와 원정(院政)을 지켜주는 신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⁸⁾. 텐구 문답 속의 텐구는 관정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불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곤자쿠』에 등장하는 텐구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형식에 있어서도 『곤자쿠』 제6화처럼 텐구와 빙의된 사람, 그리고 제3자(목표물)의 구조를 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스미요시다이묘진 등장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텐구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곤자쿠』속의 텐구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텐구 문답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스미요시다이묘진(住吉大明神) 과 텐구

-반불법(反佛法)적 존재에서 반왕법(反王法)적 존재로

관정을 둘러싼 산문과의 소동이 극에 달한 즈음 스미요시다이묘진은 고시라카와인 앞에 나타났다. 현현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시라카와인 안에 있는 교만심을 없애고 텐구가 찾아올 연을 없애으로써 관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이다.

오늘밤 당번은 마쓰오 다이묘진(松尾大明神)입니다만 서둘러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당직을 바꾸어 알현하였습니다. 어제 새벽 산노시치샤(山王七社) 텐교다이시(傳教大師)가 이 늙은이의 숙소로 찾아오셔서 일본의 길흉을 의논하시는데, 이번 산문 스님들의 사풍(邪風)이 특히 심하다 하여¹⁹⁾ (생략)

인용에서 스미요시다이묘진은 자신이 나타나기까지의 정황을 설명한다. 첫 번째 밑줄 부분을 보면 스미요시다이묘진이 얼마나 황급히 나타났는지 알 수 있다. 당직을 바꾸면서까지 서둘러 고시라카와인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앞서 서술하였듯이 관정을 성사시키는 것이 스미요시다이묘진 현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관정이라고 하는 불교적 행위가 과연 존각을 다투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일까. 불교 의식의 하나인 관정만을 가지고 스미요시다이묘진 현현을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불충분하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두 번째 밑줄인 「일본의 길흉(日本國ノ吉凶)」²⁰⁾이라는 표현 안에

18) 武久堅「平家物語、その変身(生成平家物語試論)-後白河院「伝奇」と「住吉大明神」を中心に」(『軍記と語り物』1995年 3月) p.5

19) 주14)의 前掲書 p.223

20) 신들이 신령스러운 곳에 모여 일본의 길흉을 논의한다고 하는 발상은 이 밖에도 「미사요리경의 사무라이 꿈에서 본 일(雅頼卿ノ侍夢見ル事)」(일명 靑侍の夢)에도 보인다. 꿈속에서 하치만 대보살(八幡

담겨있다. 스토쿠인(崇徳院)의 저주에도 보이는 「일본」이라는 말은 국가명으로서의 일본이 아닌 신들이 활동하는 세계와 대비되는 현실세계, 즉 천황 혹은 인(院)이 지배하는 세계를 가리킨다. 엔라쿠지와 고시라카와인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본의 길흉」에 관련된 문제이다. 스미요시다이묘진이 황급히 나타난 이유는 이 소동이 일본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정을 둘러싼 산문과 고시라카와인의 대립은 자칫하면 종교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 사실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산문의 권문(權門)화이다 당시 대사원은 그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특히 황실이나 섭관가(攝關家)의 자제를 제자로 맞아들이면서 이전보다 권위가 한층 높아지고 정치와의 밀착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관정이나 수계와 같은 불교의식은 개인 신앙의 징표이지만 최고 권력자인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은 개인 신앙 차원에 머무를 수 없는 정치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당시 만연했던 사상, 즉 불법과 왕법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왕법불법상의(王法佛法相依) 사상에 의거하면 어떤 절에서 관정을 하는가는 더더욱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을 둘러싼 소동은 종교 의식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왕법불법상의 사상을 고시라카와인과 산문이 같이 주장한다고 해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내가 설령 이치를 급히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을 공포하고 산문 소유의 땅을 다른 절에 준다고 하더라도 왕위(王威)를 왕위로 여긴다면 누가 이것을 어기겠는가. (중략) 무릇 왕위는 불법을 숭상하고 불법은 왕위를 지키며 서로 도와주어야 (신불의) 효험도 많고 밝은 덕도 더욱 밝아진다. 만약 왕위를 왕위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떠한 불법이 우리나라에서 흥했겠는가. 이번 산문 스님들이 온조지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데에는 천태 자스(座主)를 귀향 보내고 산문 스님들을 잡아 가두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²¹⁾.

고시라카와인 내면의 말에 표현되어 있듯 왕법 입장에서 볼 때 불법은 어디까지나 왕법을 보좌해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고시라카와인의 권위에 흠이 가는 행동은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제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 서술했듯이 대사원의 힘은 이미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결국 고시라카와인이 온조지에서의 관정을 포기하는 쪽

大菩薩)과 가스가다이묘진(春日大明神), 이쓰쿠시마묘진(巖島明神)이 회의를 통해 기요모리에게 맡겼던 검을 거두어들여 요리토모에게 맡길 것을 의결한다.

21) 주14)의 前掲書, pp.219-220

으로 일단락된다. 권문화된 대사원의 세력에 고시라카와인의 의지가 꺾인 것이다.

그러나 고시라카와인의 마음속에는 인용문의 밑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책임자를 문책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린다. 산문과 공권력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이다. 실제로 하쿠산(白山) 사건의 경우 산문의 강한 호소에 의해 고시라카와인이 모로타카(師高), 모로쓰네(師經) 형제를 유배보내기는 하지만 하쿠산 사건의 책임을 물어 천대 자스를 유배 보냄으로써 반격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겐으로는 산문의 뜻이 받아들여져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시라카와인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중이어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산문과 고시라카와인의 물리적 충돌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서둘러 산문 스님들에게 덴구가 빙의되어 있으며 따라서 스님을 문책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관정 소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스미요시다이묘진은 현현한 것이다.

온조지를 불태우겠다는 스님들의 발언은 불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시라카와인을 핵심으로 한 왕법에 반한다. 그리고 덴구로 인한 산문과 고시라카와인의 반목은 왕법과 불법의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스님들에게 빙의한 덴구는 천황제를 토대로 한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왕법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덴구가 불교적 틀을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개 스님이 아닌 위정자의 불도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덴구는 불교적 틀을 벗어나 사회적 혼란과 연결되고 있다. 덴구가 위정자의 불도 수행을 방해할 경우, 혹은 위정자에게 빙의할 경우 위정자라는 특성상 사회적 혼란과 연결되기 쉽다. 어찌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왕권의 정점에 있는 고시라카와인 자신에게 덴구가 빙의하는 것일 것이다. 스미요시다이묘진이 황급히 나타나 고시라카와인의 교만심을 일깨워주고 관정을 성사시켜 「즉신성불」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지쇼(治承) 3년 쿠데타와 덴구 - 난세를 만들어내는 덴구의 탄생

관정을 둘러싼 소동은 고시라카와인이 시텐노지에서 관정을 함으로써 일단락된다. 덴구들의 획책은 스미요시다이묘진의 도움으로 큰 사회적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이 난다. 그렇다면 덴구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예는 『헤이케모노가타리』에 없을까. 불법과 왕법을 거스르며, 정치적 힘이 있는 사람에게 빙의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특징을 주시할 때 지쇼 3년 쿠데타와 관련된 하나의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렌노의 꿈(蓮如の夢)>이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엔교본과 나가토본(長門本) 『헤이케모노가타리』『겐페이토쇼로쿠』 외에도 나카라이본(半井本) 『호겐모노가타리(保元物語)』에 실려 있다. 다음은 꿈의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사누키인(讃岐院)이 행차하시는데 우지(宇治) 좌대신과 다메요시 뉴도(爲義入道)가 모시고 있었다. 고시라카와인의 거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우선 다메요시를 들여보내셨다. (들어갔던 다메요시가) 서둘러 나와서는 「이 곳에는 수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불도수행중이십니다。」라고 아뢰니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며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다메요시가 「그렇다면 기요모리의 집으로 드시지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곳에 들렀다. 참으로 이 꿈을 생각나게 하는 뉴도(入道: 기요모리)의 마음이다²²⁾.

꿈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스토쿠인 일행이 고시라카와인 거처에 들어가려다가 고시라카와인이 불도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기요모리(清盛) 저택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구조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관정을 둘러싼 소동과 비슷하다. 즉 덴구가 산문 스님들에게 빙의하여 관정을 방해하였듯이 스토쿠인 일행이 기요모리에게 빙의하여 지쇼 3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빙의자인 산문 스님과 기요모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며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40여명의 대신들을 경질시키고 고시라카와인을 유폐시킨 이 사건은 정치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측면에서도 관정을 둘러싼 소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쇼 3년 쿠데타를 일으킨 스토쿠인의 모습 속에는 난세를 초래하기 위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는 『다이헤이키(太平記)』 덴구의 맹아가 엿보인다.

물론 엔교본의 경우 『다이헤이키(太平記)』처럼 텍스트 속에서 스토쿠인 영(靈)을 덴구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원형인지 덴구인지 구체적인 명칭에 대한 언급은 없다. 꿈속에 스토쿠인이 등장했다고 할 뿐이다. 그러나 꿈 이야기 전과 후에 「천마 외도(天魔外道)가 뉴도(入道: 기요모리)의 몸에 바꾸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천마가 기요모리의 몸에 들어가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지렀」다와 같은 표현이 있어, 앞서 말한 유사점과 더불어 이들이 천마 즉 덴구에 가까운 존재임을 추론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고시라카와인의 불도수행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덴구는 「장애를 이룰만한 연(緣)이 없는 사람의 곁에는 날라 와 모이는 일이 없다」는 스미요시다이묘진의 말처럼 교만심을 버리고 불도에 정진하는 고시라카와인의 거처에 스토쿠인 일행은 들어가지 못했다. 즉 덴구가 고시라카와인에게 빙의하지 못한 것이다. 스미요시다이묘진의 도움을 받아 「즉신성불」의 몸이 된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물론 스토쿠인 일행은 신앙심이 부족한 기요모리의 집으로 들어가 쿠데타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빚었지만 왕권의 정점인 고시라카와인은 건재하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주14)의 前掲書 p.308

조켄호인(靜憲法印)은 유폐된 고시라카와인을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천마가 기요모리의 몸에 들어가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지만 인께서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 쇼하치만구(正八幡宮), 특히 신심이 두터우신 히에산노시치사(日吉山王七社)는 수호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고, 법화경 족자에 강림하시어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하, 인민을 위해 더욱더 인정(仁政)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정무에 사심이 없게 노력한다면 천하는 당신의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악당은 물거품처럼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²³⁾

위의 인용문에서 조켄호인은 우선 이번 쿠데타는 천마가 기요모리 속에 들어가 저지른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고시라카와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며 지금처럼 신앙심을 굳건히 지키고 인정을 베풀면 다시 천하가 고시라카와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스미요시다이묘진이 덴구 문답을 통해 이룩하고 싶었던 것은 <렌노의 꿈> 속의 고시라카와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끊임없는 종교적 수행을 통해 덴구에 빙의되지 않는 군주의 모습이다. <렌노의 꿈> 속에 보이는 왕법과 불법을 한 몸에 구현한 군주여야만이 이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중국에 가서는 왕권회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새로운 시대로서의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성립을 노래하는 작품이 아니라 헤이케에 의해 유린된 왕권이 요리토모에 의해 회복됨을 노래하는 작품이다²⁴⁾. 왕법과 불법을 한 몸에 구현한 고시라카와인이야말로 덴구가 호시탐탐 체제전복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 왕권회복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기대주이다. 물론 고시라카와인의 이러한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모습은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불과하며 현실의 고시라카와인과는 다르다. 현실세계에서는 기요모리에서 요시나카(義仲)로, 요리토모로 그리고 요시쓰네(義經)로 계속해서 파트너를 바꾸며 각종 책략을 통해 지쇼·쥬에이 격동기를 살아간 노획한 정치가로서의 고시라카와인이 있을 뿐이다.

3. 결 론

덴구 문답속에 등장하는 덴구는 산문 스님들에게 빙의하여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을 방

23) 주14)의 前掲書 p.323

24) 효도 히로미(兵藤裕己)는 겐지(源氏)와 헤이케가 서로 견제하며 조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源平交替)는 사상이 『헤이케모노가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요리토모 역시 무가정권을 수립한 인물이 아니라 왕조의 질서를 회복시킨 인물로 조형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平家物語<語り>のテキスト』(ちくま書院、1998年) p.81)

해한다. 이러한 모습은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곤자쿠』 20 권속의 덴구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반불법성은 천마와 덴구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기존의 덴구는 불법에 반하는 특성만으로 설명가능한 존재였다. 반면 덴구 문답 속의 덴구는 위와 같은 불교적 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왕권에 반하며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새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위정자의 관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색깔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는 덴구의 행위 역시 불교적 틀을 벗어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고시라카와인으로 상징되는 왕권에 반하며 질서 체계를 어지럽히는 덴구의 모습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다.

덴구 문답과 <렌노의 꿈> 속에 보이는 덴구는 산문 스님과 기요모리에게 빙의하여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을 방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덴구가 불교적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인간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덴구의 모습은 고시라카와인을 둘러싼 덴구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물론 덴구 문답 분석만으로 고시라카와인에 얽힌 덴구담의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덴구 문답과 <렌노의 꿈> 분석을 통해 적어도 덴구와 고시라카와인의 긴밀한 관계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즉 덴구와 고시라카와인의 긴밀한 관계는 지쇼·쥬에이 내란기에 천황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분분투해야 했던 상황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황가의 안위를 도모해야 했던 고시라카와인의 입장이야말로 고시라카와인을 둘러싼 덴구담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덴구에 빙의됨 없이 「즉신성불」의 몸으로 왕권을 지켜나간 모노가타리 속의 이상화된 고시라카와인의 모습도, 그리고 덴구도에 빠져 덴구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히라산코진레이타쿠』의 고시라카와인의 모습도 결국은 혼란기를 온 몸으로 견디어낸 군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언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힘있는 위정자나 주요 인물에 빙의하여 난세를 초래하는 군키모노가타리 속의 덴구는 역으로 말하면 난세라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덴구와 난세를 잇기 위해서는 덴구와 빙의자, 그리고 목표물이 되는 제3자의 구도가 중요하다. 불교에서 천마는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빙의하여 방해하지는 않는다. 덴구의 빙의현상은 불교적 토양이 아닌 다른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参考文献】

- ・ 黒田俊雄『王法と仏法』法藏館、2001年、p.50
- ・ 佐竹昭廣校註『寶物集 閑居友 比良山古人靈託』<新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1993年、p.469
- ・ 高橋昌明「鬼と天狗」『岩波講座日本通史中世二』岩波書店、1994年、p.330
- ・ 武久堅「平家物語、その変身(生成平家物語試論)-後白河院「伝奇」と「住吉大明神」を中心に-」『軍記と語り物』1995年 3月、p.5
- ・ 富倉徳次郎『平家物語全注釋 上巻』角川書店、1982年、p.330
- ・ 馬場あき子『鬼の研究』筑摩書房、1999年、p.221
- ・ 兵藤裕己『平家物語<語り>のテキスト』ちくま書院、1998年、p.81
- ・ 馬淵和夫編『今昔物語集』小學館、1974年、pp.38-39
- ・ 宮本袈娑雄『天狗と修験者』人文書院、1989年、p.27

K C I

要 旨

本論文は延慶本『平家物語』にある天狗問答という逸話をベースに後白河院と天狗との関わり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数々の寺社詣でや仏事法會などをとおして即身成仏、極樂往生を願った後白河院には不思議にも天狗に関わる逸話が数多く見られる。たとえば『比良山古人靈託』で後白河院は成仏するのではなく崇徳院と同じく天狗道に墮ちたとされている。また「日本國第一之大天狗」と言われ、住吉大明神と交わされたとする天狗問答が存在する。なぜ後白河院は天狗道に墮ちたり天狗と言われたりするのでしょうか。または後白河院にまつわる天狗譚のなかの天狗はいかなる靈的存在であるのか、など検討すべき問題がたくさん存在する。本論文はこのような問題の回答の糸口を天狗問答の分析をとおして探そうと試みたものである。

『今昔物語集』にみえる天狗は僧の修行を妨げたり、民衆の心を惑わしたりするが、すぐさま高僧や識者によってその正体がばれてしまう存在である。しかも子供に打たれたりするどこかとばけた魔物である。しかし天狗問答や〈蓮如の夢〉に登場する天狗は山門の大衆と清盛の身に入れ替わって、後白河院の灌頂を阻止し、治承3年クーデターを引き起こす手ごわい存在として登場している。世を亂すために集まって議論する『太平記』の天狗の萌芽が見えているといえる。ここで肝心なのは世を亂すために政治的な力のある樞機の人物に憑依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天狗が憑いた樞機の人物は天狗の意のままになって社會秩序を脅かし、世を亂すのである。後白河院が天狗にとり憑かれると世の中は後白河院の意思とは關係なく亂世になってしまう。それは一番警戒すべき事態で、それを悟らせるためにわざわざ住吉大明神が顯現したのである。治承・壽永の激動期を生き抜いた後白河院は一方では即身成仏の帝として王權を守った君主として理想化され、もう一方では天狗道に落ちた大天狗として造型されるわけである。

キーワード：後白河院、天狗、仏法、王法、憑依、亂世

투 고 : 2006. 2. 28
1차 심사 : 2006. 3. 11
2차 심사 : 2006. 4. 1

住 所 : (121-77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3번지 삼성래미안 공덕 차 아파트 106 동 201 호
電 話 : 02-6749-1930
e-mail : 37bara@hanmail.net